

불교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

201321951 정치외교학과 김한글

서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박5일 동안 동남아에 위치한 미얀마에 다녀올 기회가 생겼다. 어찌보면 긴 시간일지 모르겠으나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녀오면 그 지역의 가장 강한 특색만이 기억에 남고는 한다. 나에게 있어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불교의 나라' 혹은 '불국토의 나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릴지 모르겠다. 짧은 기간동안 미얀마에서 느낀 것은 모든 삶에 불교가 녹아 있다는 것이었다. 미얀마는 약 5천만명 인구 중에서 90%가량이 불교를 믿고 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관광지로 떠오르기 시작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가 방문한 곳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관광객을 환영하는 모습이 아닌, 너저분하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문화체험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단순히 미얀마의 변화하는 정치상황과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있었던 '아웅 산 폭발테러사건'에 대해서만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지원 동기와 활동 계획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다. '아시아의 보석'이나 '관대함과 배려가 살아있는'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일 뿐 실제로 어떤 곳일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아마도 관광지가 된지 몇 해 지나지 못해 가장 상징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것일지 모르지만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게 된 미얀마는 불교를 빼고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교와 밀착되어 있었다. 때문에 애초에 미얀마의 정치상황과 한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던 내 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듣게 된 생각은 '영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었다.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만드는 종교, 토착신앙, 생활양식들을 변화시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버마식 사회주의'라고는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섰던 이곳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궁금해졌다. 따라서 여행 일정간 보고 들었던 것들은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배경지식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외의 것들은 추가적인 자료 조사에 의해 작성하는 것임을 밝힌다.

본 론

미얀마에서 불교는 종교적 성격을 넘어 미얀마 그 자체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일부 소수민족과 토착신앙, 타 종교가 존재하고는 있다) 미얀마에서는 불교의 역사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1900년대 초반 영국에 대한 독립운동부터 버마식 사회주의가 생겨날 때 까지의, 비교적 최근 상황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환경을 통해 강제로 근대화를 경험하게 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투입된 서구의 기독교들에 의해 분열되고는 했다. 미얀마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의 선교를 위해 미얀마 내에서 불교를 배척하고자 하는 시도가 식민 정부의 도움을 통해 자행되기도 했다.

미얀마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청년회¹⁾를 설립하고 기독교와 식민 통치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흔히들 미얀마의 불교는 '소승불교'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문제와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토와 종교적 위기에 대응해 범국민적 운동을 이끄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반영투쟁이 나타나게 됐으며 민족운동의 중심이 된 불교는 미얀마의 정체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John F. Cady를 위시한 미얀마 근대 역사가들의 일부는 불교가 미얀마 독립에서 정치적 무기로 악용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미얀마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으로서 반영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특히나 두 지도자 우오웃따마(U Ottama)와 우위싸라(U Wisara) 스님은 1930년대까지 반영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으며 1929년 9월 우위싸라 스님이 투옥된 단식하다 옥사한 것을 기점으로 대학 중심의 민족주의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불교의 스님들이 미얀마 독립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으며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 가. 영국 정부가 미얀마 합병한 1886년 이후 승려의 신분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나. 근대시기까지 승려는 마을의 유력자 및 사회적 지도자였으며 무소유 원칙을 준수하였기에 영국정부에 대해 자유롭게 맞설 수 있었다.
- 다. 승려의 사회적 지위는 전통적으로 존중되며 마을 상담역이나 교육자였으므로 민중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 라. 미얀마 사회에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던 승가를 운영하여 조직망이 확보되어 있었다.

등을 들 수 있다.²⁾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문화교류 기간동안 직접 두눈으로 확인한 미얀마에서는 승려가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문에서 출가를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점(가이드의 설명에

1) 불교청년회(YMBA)는 스리랑카의 불교청년회에 영향을 받아 결성된 청년절제연맹의 모태로 설립됐으며 미얀마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을 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배상환, 『미얀마 불교에서 신앙의 자유와 불교의 국교화 운동』, 「불교학보」, 2011.9.

따르면), 또한 미얀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원들과 이를 찾아 경건하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미얀마에서 현재까지도 인정되고 있는 승려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미얀마의 불교에도 위기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영국은 이 기간동안 미얀마를 인도의 한 주로 편입시켜 분할 통치하는 방식으로 식민지 체제를 유지했는데 이때 영국의 선교사들은 산악지대 소수종족을 중심으로 기독교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미얀마의 68%는 버마족 그리고 나머지 인구는 까인족, 산족, 라카잉족, 친족, 까친족 등 135개의 소수종족으로 이뤄져 있는데 까인족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빠르게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버마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미얀마 민족의 분열을 조장했다. 여행 도중 가이드가 말했던 미얀마 민족간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영국정부는 이때 당시 중국인과 인도인을 미얀마에 다수 유입시킴으로써 미얀마 사회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버마족 사회를 분화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시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독립 쟁취를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에도 1930년대부터 막시즘이 소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이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버마공산당을 조직하여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표명했다.³⁾ 이후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겪을 때에도 이들은 독립 쟁취를 위해서 농민군을 조직해 영국,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미얀마에서 불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민족주의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활동했으나 그 기반이 허약했는데,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와 연합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미얀마의 독립 후 우누 식은 신정권을 수립하게 된다. 독립 이후 미얀마는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게 됐는데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정권 수립이나, 소수 종족들의 자치요구들은 신정권의 영향력이나 정책 방향을 가로막는 중대한 사안이었다.⁴⁾ 이와 같이 미얀마의 승가 역시 혼란에 빠졌다. 식민통치 이전부터 왕의 후원을 받아왔던 승가의 전통이 무너지면서 두가지 파벌로 나뉘지게 되는데 첫번째는 불교의 핵심 요소를 고수하는 전통적인 움직임이며 두번째로 나타난 것이 불교사회주의 운동인 것이다.

첫번째 흐름은 마하씨 서야도(Mahasi Sayadaw)의 명상센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 됐는데 '위뻐따나 희생'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다. 본래 이번 일정 중에 있었던 명상센터 역시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의 불교 움직임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굳이 명상센터가 아니더라도 사원에서나, 길거리에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운동을 통해 명상이 생활화 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흐름은 미얀마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정치단체와 정치인들에 의해 전개됐다. 불교사회주의 운동은 자본주의를 제국주의와 동일시하며 식민잔재를 철폐하고 평등사회 구축을 위

3) 배상환, 앞의 논문.

4) 독립 과정에서 아웅 산은 소수종족들에게 자치주의를 약속했었다.

해 사회주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누는 불교교리가 바로 사회주의 이론의 핵심이라고 간주, 불교사회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며 이를 행했으나 이때 아웅 산은 불교와 정치가 확실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누는 “미얀마인의 가치추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정신세계이며,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이며 그것도 불교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마 사회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 소수 민족들의 자치권 요구와 신 정부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버마식 사회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그리 순수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는 것 같다.

결론

미얀마에서 여행은 대부분 사원에서 사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다. 그만큼 불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주제로 근대 미얀마 불교의 역할을 말하고 싶었다. 근대시기 미얀마의 독립운동에는 불교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오직 미얀마에서만 나타난 공산주의와 불교의 결합 역시 상당히 흥미로웠다.

미얀마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미얀마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다양한 민족이 서로 섞여 있으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 역시 불교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인도에 서 있는 이슬람-힌두교의 갈등처럼 위험 수준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원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랐으며 입은 옷 역시 다양했으나 모두들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부처 앞에서 명상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역시 식민지 시기를 지냈다. 그것도 영국과 일본 두 나라에 의해서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얀마는 미얀마 만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세계 속의 한국’은 어떤 것인가. 미얀마에서는 국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그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불교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다. 그간 경제적 성장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의 것을 잃은 채 앞으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불고기, 김치, K-POP 등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한국만의 어떤 전통, 특성을 바로 생각해내기는 어렵다. 해외 탐방 혹은 국제교류는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냐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 방문을 통해서 한국은 어떤 나란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고민해본다.

<참고자료>

배상환, 『미얀마 불교에서 신앙의 자유와 불교의 국교화 운동』, 『불교학보』, 2011.9.

최재현, 『미얀마 버마족의 생활 리듬과 불교』, 『국제지역연구』, 2003.12.

조흥국, 『소승불교 동남아 사회의 민간신앙 - 태국과 미얀마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001.12.

장준영, 『황금에서 다이아몬드로 - 미얀마의 발전국가 전략과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2012.12.